

최신 ICT 이슈

II . CES 2018 에 나타난 ICT 전시회 테마의 다양화와 세분화 흐름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의 불거리는 해마다 변하고 있으며 테마도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참가 목적과 관심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전시회가 되었음

- ▶ 2018 년 51 회째를 맞은 CES 의 개최 규모는 해마다 커져 올해는 참가업체 수가 3,900 개에 달했으며, 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거리도 연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 ▶ 2010 년대 초반에는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을 투입하여 경쟁하는 자리였지만 현재는 퇴색했으며, 그 대신 로봇, 드론, 자율운전, 스포츠 혁신, 스마트 시티, 수면 기술(SleepTech), 영유아용 기술(BabyTech) 등으로 테마가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음
- ▶ 테마가 다양화되면서 하나의 전시회지만 참가의 목적이나 관심이 다르면 전혀 다른 전시회처럼 느껴지게 되었는데, 이는 CES 가 거대화되면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임

◎ 최근 몇 년은 그간 CES 와 별다른 인연이 없던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 자동차 업계의 대거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밖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음

- ▶ 참여 업체가 변화하는 것은 기술 기업의 흥망성쇠 주기가 짧아진 이유도 있지만, CES 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 전시 테마를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관람객 유치를 촉진하려는 주최측의 전략에 기인한 바가 큼
- ▶ 2018 년 CES 는 모터쇼를 방불케 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 업계의 대거 참여가 이슈였지만, 그 외에도 CES 와 관련 없어 보이는 업종에서 새로 참가한 기업들이 다수 있었음



<자료> Boston University News Service

- ▶ 예를 들어, 보험업계의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운전의 위험도에 관련한 데이

[그림 1] CES 에 참가한 리버티 뮤추얼 보험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터와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주지 평가” 응용 프로그램과 “주택의 건강성”을 시각화한 주택 수리 진단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했음

- 이들 응용 프로그램을 리버티 뮤추얼 보험이 보유한 데이터 과학 기술과 보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스턴과 싱가포르에 소재한 혁신 센터 연구소의 성과임
- 뷰티 영역에서는 프랑스 로레알이 손톱에 붙이는 자외선 측정장치를 선보였으며,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존슨앤존슨이 피부 진단 카메라와 아기의 수면 기록 앱을 전시했음
- 이는 실리콘밸리 진출 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실리콘밸리에는 기존의 반도체 및 전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외에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구와 투자를 위해 거점을 두고 있음

◎ **지난 10년간 스타트업들의 신제품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대기업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올해 CES에서 엿보였음**

- 2006년에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제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제품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롱테일(Long Tail)’이라 표현했는데, 롱테일로 인해 제품 개발 속도가 더딘 대기업이 신생 기업에 고전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들은 롱테일에 대한 대응책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업계의 경우 포드와 도요타는 자동차 그 자체뿐 아니라 “거리의 사람이나 상품의 이동”을 설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음

- 가령, 도요타가 발표한 ‘e-팔레트(Palette)’는 하드웨어에만 주목하면 전기자동차(EV)이지만, 그 실체는 EV를 활용한 이동 서비스를 폭넓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운전시대의 도시 인프라임



<자료> Wheels

- CES에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도요타는 아마존, 우버, 피자헛 등과 “e-팔레트 연합”을 구성하여 다른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여 시장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음

[그림 2] 도요타의 e-팔레트

- 대형 가전 메이커인 소니는 자사의 강점인 고감도 CMOS 센서를 핵심으로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드론 등을 결합한 제품을 향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했으며, 가정용 로봇 ‘아이보(aibo)’는 첫 테이프를 끊은 제품이라고 함

- ▶ 파나소닉은 도시 단위의 “에너지 저장 및 순환 시스템”과 “비즈니스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전시했는데, 지금까지 기업의 중심이었던 가전 제품은 일체 전시하지 않았으며, 사업방향을 180도 바꾼 듯한 모습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음

◎ CES 2018에서는 국가별 혁신 성과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가 단위의 경쟁을 부추기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참가를 촉진하려는 주최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첫날 기조 연설에서 CES 주최측은 ‘국제 혁신 성과 기록표’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가의 혁신 추진 정도를 다양성과 자유, 브로드밴드, 연구개발 투자 등 12개 지표에 따라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전세계로 확장한 것임
- ▶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했으며, 12개 지표에서 대부분 A와 B 등급을 받았지만, 다양성, 차량 공유, 환경 등 3개 지표에서 D로 평가 받았음
- ▶ 이번 순위에서 상위 10개국은 핀란드, 영국, 호주,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체코 순이었음
- ▶ 2019년 이후에도 이 랭킹의 변화에 각 국가가 일희일비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국가 단위의 경쟁을 부추기려는 CES 주최측의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름
- ▶ 이미 그 징후는 전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스타트업을 모아 주최측의 기획 코너인 ‘유레카 파크(Eureka Park)’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
- ▶ 2018년에는 이런 흐름에 네덜란드가 가세했으며, 전시회 첫날 네덜란드는 자국 부스의 개막 행사에 왕자를 초대하는 등의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음



<자료> ITPro

[그림 3] 늘어난 프렌치 테크 부스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이 큰 테마를 이룸에 따라, CES는 당분간 음성 제어 기술 기반 전자제품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짙어졌음

- 2017 년 CES 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음성 AI 였으며, 전시회장 곳곳에서 아마존의 알렉사(Alexa) 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었음
- 2018 년 음성 AI 영역에서 존재감을 나타낸 것은 2017 년 알렉사에 가려졌던 구글이었으며, 구글은 전시회장 곳곳에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마케팅을 전개하였음
- 아마존과 구글 외에도 음성 AI 전문 개발 기업으로 각종 기기에 탑재를 노리는 ‘사운드하운드(SoundHound)’가 자동차, 로봇이나 자동판매기 등에 활용할 것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이번 CES 에 맞춰 여러 기업이 자사 기술을 채택했다고 발표하였음



<자료> I4U News

- 사운드하운드 기술의 특징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이해의 두 기능을 통합한 엔진 위에서,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을 지원하는 ‘도메인’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러 도메인을 결합한 복합 서비스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컨설팅업체 캡 제미니는 2018 년 1 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소비자 5,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약 24%가 웹 사이트 직접 이용보다 음성 비서를 더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3 년간 이 수치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상당 수의 소비자가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2018 년은 많은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음성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달라붙게 될 것으로 보임

◎ CES 2018 에서 몇몇 스타트업은 자사 기술의 완전 공개를 통해 하드웨어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9 년 이후에도 흐름이 이어질 지가 관심

- 인터넷에 연결된 잠금 장치(connected lock)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츠묵(Tsumug)’은 CES 에서 ‘팅크(TINK)’를 발표했으며, 이 기업은 외부의 기술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자, 제작업체에 하드웨어를 개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공개된 티нк 개발자 키트(TINK DVK)는 잠금 장치의 실내부와 실외부 및 전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키트를 이용하면 어떤 기업이든 티нк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빈 집에 방문했을 때, 구매자는 스마트폰에서 배송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온 물건임을 확인한 후 1 회용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문을 열어 주고, 기사에게 현관에 물건을 놓아달라 요청한 다음 카메라를 통해 작업을 자동 녹화하는 것이 가능함
- 초목의 CEO 는 창업 동기는 물리적인 열쇠를 없애는 것이지만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모두 대응할 자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외부의 기업이 당초 개발 기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향후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음

(VentureBeat, 1. 10. & ITPro, 1. 19.)